

일본 축산물의 Farm to Table 이 가는 길

본 원고는 한국양돈수의사회가 지난 6월 21일~22일 용인 양지파인리조트에서 개최한 '제6회 한국양돈수의사회 연례세미나'에서 Ohi Munedaka 일본양돈수의사회장이 발표한 <일본 축산물의 Farm to Table>을 요약·게재한 내용입니다. <편집자주>



Ohi Munedaka
일본양돈수의사회장

1. 일본의 양돈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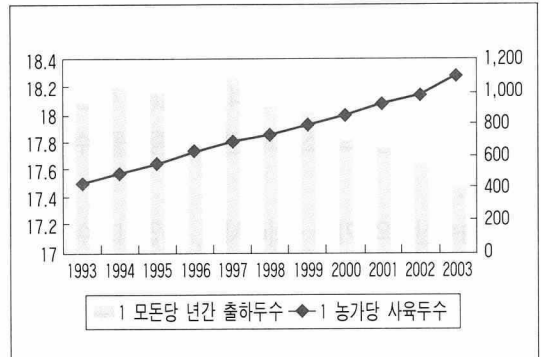
일본은 1955년 100만호였던 농가가 2005년 집계된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양돈경영 농가수는 7,731호로, 2001년 처음으로 1만호 이하의 농가수를 나타낸 이후로 계속해서 급속도로 농가수가 줄고 있다. 농가수는 줄어드는 대신 농가당 사육두수는 일반적으로 1,050두정도로 사육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일본의 돈육 자급율은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지난 2006년 현재 50%를 유지하고 있으며 올해는 50%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가당 사육두수는 늘지만 모돈당 출하두수는 줄어들고 있다. 이 표에서 참고할 것은 일본은 MSY의 개념이 후보돈까지 모돈수에 포함하기 때문에 국내의 개념으로

하면 2두 정도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일본은 성적이 잘 나오는 농장은 MSY 25~26두까지 있지만 잘 관리가 안되는 농장은 MSY 11두까지 다양하다.

일본 농림수산성 진단사업에 일환으로 시행된 질병조사에 의하면 일본 양돈산업은 세균성질병

<표 1> 일본 농장당 사육두수 현황(급격한 사육규모 확대)



보다는 바이러스성 질병이 만연되어 있다. 발육불량돈의 폐에서 검출된 병원체를 조사한 결과 양반수가 혼합감염이었으며 반수이상에서 PCV2 혹은 PRRS의 바이러스균이 검출되었다. 일본의 전국 이유휴 폐사율은 8%이며 3개월령, 특히 31~60일령 폐사가 높게 나타나 일본에서도 분만사, 이유 초기사의 위생·환경관리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PRRS, PCV2와 관련된 질병에 일본은 그룹관리, 올인올아웃, 양자관리 등을 통한 질병극복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PRRS가 최근들어 많이 발생하고 있어 폐쇄돈군을 유지해 자가갱신을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일본은 폐사율을 줄이기 위해 환경관리나 위생관리 등에도 관심이 있지만 이보다는 어떻게 하면 지육률을 높일 수 있을지에 더욱 관심을 갖고 있다.

2. 일본 양돈의 미래

향후 일본은 경영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대규모 경영과 소규모 경영의 차별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에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지만 규모에 관계없이 생산이력, GAP, 안심/안전식육, 브랜드육, 의식개선 등에 관심이 많거나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다. 또한 브랜드육은 국내 브랜드와의 경쟁이 아니라 외국 브랜드와 어떻게 차별화를 할 것이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하나의 일본 양돈산업에 있어 관심거리는 사료 자급을 향상에 있다. 옥수수의 대부분을 미국에서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양돈 관계자가 아닌 일반사람은 사료원료비가 비싸고 수입에 의존하는데 돼지고기 자체를 수입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을 한다고 한다. 이러한 일반 사람들을 어떠한 논리로 설득할 것인가가 향후 과제이며 사료

자급을 증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흔히 잔반으로 이야기하지만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잔반대신 리사이클사료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종류도 우리가 생각하는 식당의 잔반과는 다르게 빵공장의 부스러기 빵, 우유공장의 우유부산물이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리사이클 사료의 원료이다. 연간 옥수수를 미국에서 2천만톤 정도 수입하고 있는데 이러한 리사이클 사료원료 또한 2천만톤 정도 나온다.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보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아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 하는 것이 관심거리이기도 하다.

또한 일본에서는 외국에서 수입되어 들어오는 농산물로 인해 사용하지 않은 토지가 많아 식용보다는 2~3배 수확량이 높은 사료용 쌀 생산이 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쌀을 먹인 돼지의 육질은 육질등급에서도 일반돼지보다 높은 등급을 받고 있다. 일본에 생산자들은 지금까지 사료효율, 육질개선, 생산성 등에 관심이 많았지만 현재나 앞으로는 돼지고기의 균일성, 지육률 향상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판매, 품질, 안전에 신경쓸 것이다.

3. 프리팅(주)의 돈육 차별화 전략 소개

‘야마또’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모돈 1만 2천두 규모의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프리팅(주)의 사례를 통해 돈육의 차별화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가. 여성인력의 증가

일본 농장의 인력은 여성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특히 신규인력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여성이 남성보다 높다. 이제 농장의 인력구성은 여성이 50%를 넘어서고 있을 정도다. 이러한 것은 양돈장의 일이 여성으로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 큰 힘이 필요치 않으면서 취업하기가 쉽고, 월급수준도 차이가 거의 없다는 점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프리밍의 경우 여성인력이 많아 깨끗한 이미지로 소비자에게 다가갈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점을 홍보활동으로도 연관해서 사용하고 있다.

나. 평생직장의 개념

일본의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이지만 농장에 한번 들어오면 그곳에서 평생을 일할 생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같은 농장 비육사에서만 20년을 근무한 사람도 있고, 양돈장에서 다른 양돈장으로 이동도 별로 없고, 돈사간의 이동도 잘 하지 않는 것이 기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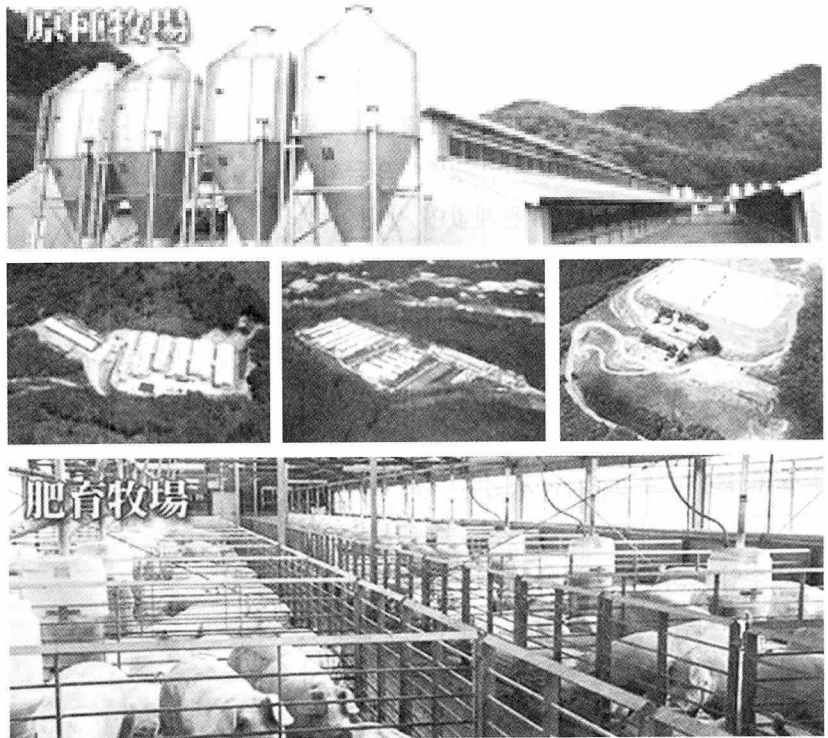
다. 돈육 차별화 전략

프리밍(주)의 차별화 전략의 하나로 혈통을 모든 소비자들이 알 수 있게끔 300여가지 기록이나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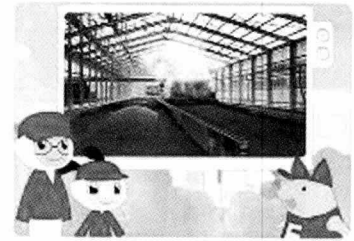
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GGP, GP, PS, 도축장, 가공장에서부터 식당까지 운영되고 있어 그야말로 농장에서 소비자의 식탁까지 모든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전 과정에 사료회사, 동물약품회사 공동출자로 만들어진 SMC라는 곳에서 안전식품 관리에 대한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SMC의 주요 역할은 질병·예방 및 질병검사 등이며 육질 검사, 지방경도 조사, 가공품의 품질 검사 등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라. 환경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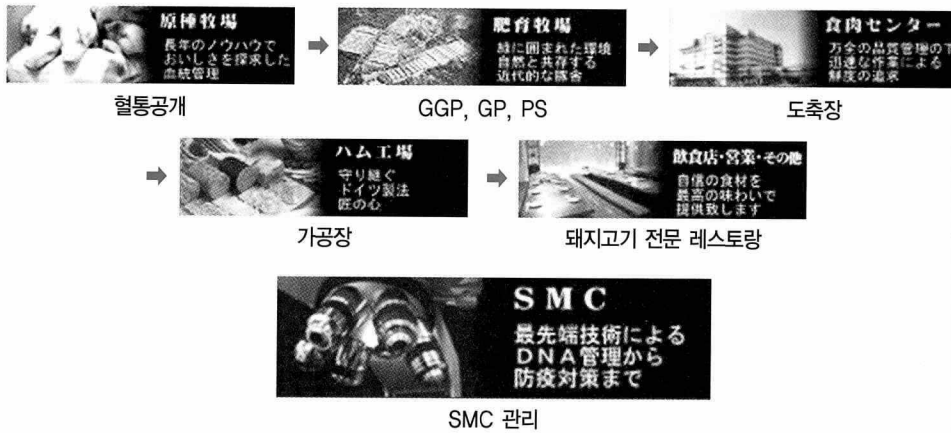
양돈장은 환경을 보존하고 아름답게 한다는 이미지 제고에 중점을 두고 농장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은 기본이며 풍력발전이나 퇴비화 사업 등을 하고 있다. 일본 역시 환경문제가 큰 관심거리이며



<프리밍(주)의 농장전경>



<농장가꾸기 및 품량발전, 퇴비화 사업>



최근에는 양돈장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이 아니라 환경을 아름답게 가꾸고 보존한다는 이미지가 확산되고 있다.

마. 주사침의 관리

일본에서는 일반소비자들이 돈육내 주사침 잔류로 인해 사고사가 많았다. 그로 인해 주사침부분은 가장 민감하면서도 확실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 또한 그만큼 식육 안전성에 대한 일본소비자의 관심은 굉장히 높다. 그 중에서도 문제가 되면

파급효과가 큰 주사침의 식육내 잔류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예를 들면 주사침이 부러지더라도 주사침이 완전히 지육내로 들어가지 않고 끝부분이 밖으로 노출되도록 한 주사침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기도하고, 주사침 사용대장을 만들어 분실시에 사유서를 쓰도록 하는 관리도 되고 있다. 주사침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양돈 이미지 등에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주사침 하나 하나에 번호를 매겨 입·출시를 기록하는 등 상당히 까다로운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양돈**

양돈농가 계도 슬로건 공모 입상작

맛도 좋고 몸에 좋은 으뜸품질 우리돈육